	보도참고자료(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변영한 실장 (2156-9401)	담 당 자	윤우근 사무관 (2156-9420)
	김기한 과장 (2156-9910)		국주성 사무관 (2156-9923)
배 포 일	2014. 3. 11(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0매

제 목 : 금융분야 global rule-setter로서의 역할 강화 - 신제윤 금융위원장 제27기 FATF 의장 · IFRS 감독이사회 이사 선임

- ☐ 최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와 IFRS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는 각각 한국의 제27기 FATF 의장국 선임('14. 2. 14일), IFRS 상임이사국 선임('14. 1. 28일)을 공식 결정함
-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IFRS 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27기 FATF 의장* 및 IFRS 이사**를 역임하게 됨
- * 아시아에서는 일본('98~'99), 홍콩('01~'02)에 이어 3번째로 FATF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으며, 의장(국) 임기는 '15. 7월부터 1년(FATF 운영규칙에 따라 의장(국) 임기 개시 직전 1년간 부의장(국) 업무를 수행하며, 의장 직위는 금융위원장직 유지 여부와 무관)
- ** 현재 IFRS 상임이사국은 미국, 호주, EU, 일본, 말레이시아 5개국이며, 한국·브라질이 추가 선출됨에 따라, 7개국 체제로 재편 (① 상임이사국 임기 : 영구('14. 2월~), ② 이사 임기 : 위원장직 임기에 연동('14. 2월~금융위원장직 임기 만료))

1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직) 수임

- ☐ FATF는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권위 국제기구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WMD)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FATF 의장 및 개별 실무회의 의장(국)을 독점해 왔으며,

- 금번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FATF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은 3년 동안('14. 7월(의장국 임기 개시 1년 전)~'16. 6월(임기 종료 후 1년)) FATF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FATF 의제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국가*가 정회원 가입 이후 단시일 내에 의장국에 선임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 한국은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유럽 주요국들의 반대로, 수차례 국제기준 이행 계획을 제출한 끝에 정회원 가입에 성공('09)

- 이는 10여 년에 걸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인프라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 등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 금번 의장(국) 수임은 한국이 미국·유럽 등 자금세탁방지분야 중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며, 금융 한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IFRS 상임이사국 및 이사 선임

□ IFRS 감독이사회는 IFRS 재단 및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구의 활동을 감독하고 재단 이사를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IFRS 내 최상위 기구로서,

- 상임이사국 선임 및 이사 배출을 통해 향후 국제회계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IFRS 제·개정시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IFRS 내에서는 정덕구 전 장관이 IFRS 재단 이사로, 서정우 전 회계기준원 원장이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 금번 한국의 감독이사회 진출은 IFRS 도입 및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등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 경쟁 상대였던 중국, 인도,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등보다 먼저 감독이사회로 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음

3 의의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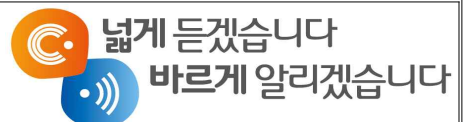
- 금번 성과는 그 동안 한국 정부가 거둔 자금세탁방지 및 회계 분야 정책 성과와 한국의 높아진 국가위상 등이 반영된 결과임
- 금번 수입은 한국의 국격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와 함께,
 - 미국·유럽 선진국 중심의 금융 분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규칙 수용자(rule taker)의 입장에서 벗어나,
 -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서 핵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금번 성과를 계기로 해당분야 국제규범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입장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FATF·IFRS 논의 무대를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임

- < 별첨 >
1. FATF 개요
 2.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현황
 3. FATF (부)의장 개요
 4. FATF 의장국(직) 수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5. IFRS 관련 국제기구 개요
 6. IFRS 감독이사(회) 개요
 7. IFRS 감독이사회 진출의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 설립 목적

-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 (financial action)를 이행하는 행동기구 (task force)로 1989년 G7 합의로 설립
-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자금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연 확대 중

□ 회원 구성

- 36개 정회원, 8개 준회원 (FATF 권고사항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8개 지역기구), 24개 옵저버 (IMF, WB, ADB 등 주요 국제기구)로 구성
- * 우리나라는 '09. 10월 정회원 가입

< FATF 정회원 현황 >

지역	OECD 국가	非 OECD 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 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9)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계 (36)	26	8	2

* OECD 33개국 중 7개국 미가입(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 주요 기능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 분야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각국의 규범 이행 현황 평가·감독 (상호평가)
- AML/CFT 국제규범 미이행 국가를 선별하고 제재 ('14. 3월 현재 이란·북한·파키스탄·시리아 등 11개국 지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별첨 2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현황

□ FATF는 FATF 차원의 상호평가는 물론 8개 FSRB (FATF-Style Regional Body)들을 통해, 전세계에 영향력 행사

F A T F	FATF 정회원 (34개국, 2개 기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EC,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GCC,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FATF 준회원 (8개 FSRBs)	APG(아시아·태평양), CFATF(카리브해), EAG(유라시아), ESAAMLG(동남아프리카), MONEYVAL(유럽), GAFISUD(남미), GIABA(서아프리카), MENAFATF(중동·북아프리카)
	FATF 옵저버 (24개 국제기구)	AfDB, ADB, BCBS, Commonwealth Secretariat, Egmont Group of FIUs, EBRD, ECB, Eurojust, Europol, GIFCS, IDB, IAIS, IMF, IOSCO, Interpol, OAS/CICTE, OAS/CICAD, OECD, GABAC, UNODC, UN Counter-Terrorism Committee, The Al-Qaida Sanctions Committee, The World Bank, WCO
F S R B	APG (아시아/태평양, 41개국)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CFATF (카리브해, 29개국)	바하마, 발바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먼군도,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나카라과,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베네수엘라, 버진 아일랜드 등
	EAG (구소련, 9개국)	벨라루스,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ESAAMLG (동남아프리카, 16개국)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GAFISUD (남미, 13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GIABA (서아프리카, 16개국)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감비아, 가나,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MENAFATF (중동/북아프리카, 19개국)	알제리,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튀니지, UAE, 예멘
	Moneyval (유럽, 33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조지아, 교황청, 헝가리,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① 역대 의장(국) 현황

-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개국) 및 해당국 고위급 인사(장차관급 인사)들이 의장(국) 역임

② 선출 절차

- 의장국 수임을 희망하는 FATF 회원국은 수임 의사를 사무국에 서면 제출 (~통상 매년 10월)
-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적격 의장국 후보 1개국 및 그 국가의 의장 후보 1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

* 의장을 위한 자문기구로, 총 8개국(전·현·차기 의장국 3개국 + FATF 회원국 중 지역대표 5개국)으로 구성(1년 임기, 7. 1일 ~ 익년 6월 30일)

- 최적격 후보국의 의장 후보를 최종 후보로 함이 원칙이나, 동 후보가 비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의장은 해당국에 후보 재추천 요청

* 신제윤 위원장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격 판정

- 최종 후보에 대한 총회 컨센서스로 차기 의장(국) 확정(2월 총회 결정 원칙)

③ 임 무

- (의 장) 총회(연 3회)·운영위원회(수시)를 소집하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하며, 대외적으로 FATF 대표(임기는 7. 1일~익년 6. 30일)
- (부의장) 의장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의장을 대신하며, 차기 년도 의장직 승계(임기는 의장 임기 개시 직전 1년)

별첨 4 FATF 의장국(직) 수임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FATF 의장국(직) 수임은 **국격 제고** 및 **AML/CFT 분야 규칙제정자로서 역할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투명·신뢰사회 정착**의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1. FATF 의장국(직)의 기능

-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논의를 주도하며, 대외적 (FATF 재무 장관회의, 각종 UN회의 등)으로 FATF 대표 (임기는 7월~익년 6월)
- 부의장은 의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시 의장을 대신하며, 차기년도 의장직 승계

2. FATF 의장국(직)의 의의 및 기대 효과

①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국격 제고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회의를 주관함으로써, 국격 제고를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
- ⇒ 의장국(직) 수임 자체로 우리가 **AML/CFT 분야 선진국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과거 의장국)에 **준하는 신뢰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음

② 지하경제 양성화 및 투명·신뢰사회 정착에 기여

-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FATF 국제기준 이행**을 가속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 ⇒ **AML/CFT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지하 경제 양성화와 투명·신뢰사회 정착에 기여

③ 자금세탁방지 분야 규칙제정자 (rule-setter)로서의 역할 강화

- 3년('14. 7월~'17. 6월) 간 트로이카의 일원으로 FATF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AML/CFT 분야 국제 논의 및 의사 결정 주도**
- * 의장(국)은 FATF 운영위원회 (트로이카(전·현·차기 의장국) + 지역대표 5개국=총 8개국)의 일원으로 FATF의 핵심의사결정 주도

별첨 5 IFRS 관련 국제기구 개요

지배구조	기 능	비 고
① Monitoring Board	· 재단 이사 임명 승인 · 재단 및 IASB 등 감독	· 5명 (옵저버 : BCBS)
② IFRS 재단 이사회	· IASB 등 산하기구 인사감독 · 자원조달 및 예산배분 등	· 22명 (한국진출, '11.1월)
③ IASB (기준위원회)	· IASB : IFRS 제·개정 · IFRS IC : IFRS 해석	· IASB : 16명 (한국진출, '12.7월) · IFRS IC : 15명
④ IFRS IC (해석위원회)		

① Monitoring Board (Board) :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 (기 능) IFRS 재단 및 그 산하 기구(IFRS를 제정하는 IASB 포함)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재단 이사 선임시 최종 승인권 행사
- (구 성) 개별국 또는 지역연합체(EU) 감독당국 5명, 국제기구 (IOSCO) 당연직 2명

* '14. 1. 28일 한국과 브라질 신규 추가

② IFRS 재단

- (기 능) 재단 이사(Trustee), IASB 등 산하기구의 임명권 및 예산 배분·승인권 등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
 - (구 성) 현원 22명(정덕구 前 장관, 미국 SEC 상임위원, 이탈리아 前 재무장관 등)
- * 정덕구 이사 '13. 7. 4일 3년 임기로 재선임('11. 1월 최초 선임)

③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기 능) 국제회계기준(IFRS)을 제·개정하는 핵심 위원회
 - (구 성) 현원 16명(서정우 前 회계기준원 원장 '12. 7월 선임('17. 7월까지))
- * 지역별 구성 : 유럽(5명), 북미(4명), 아시아-태평양(5명), 아프리카(1명), 남미(1명)

④ IFRS IC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해석위원회)

- (기 능)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필요시 해석서 발표
 - (구 성) 현원 15명 (위원장 포함)
- * 지역별 구성 : 유럽(6명), 북미(4명), 아시아-태평양(4명), 기타(1명, 위원장)

① 설립 배경 및 주요 경과

- '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자본시장감독기구가 IFRS 시스템의 책임자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 ('09. 2월)
- 국제증권감독위원회(IOSCO)를 중심으로 미국·EU가 참여하는 5개국 체제로 출발했으며, 최근 한국·브라질을 추가한 7개국 체제로 확대·개편

② 주요 기능

- IFRS 재단 및 IASB의 독립성 감독·유지를 통해, 회계 분야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IFRS의 품질 유지
- 각국의 원활한 투자자보호, 시장 건전성 감독 업무 지원
- IFRS 운영 총괄(감독이사회 회의, 재단이사회 등과의 합동회의 등 주도)

③ 임 기

- 감독이사회의 7개 이사국은 영구적인 임기가 보장되는 상임이사국
- 감독이사회 이사는 이사국을 대표하는 자로, 임기는 국내 임기에 연동
 - * 이사국의 감독기구 대표가 이사를 역임하며, 국내 임기 만료 시 이사 임기 자동 만료

④ 이사(국) 및 의장 선출 절차

- 통상적인 감독이사회 의사결정절차(이사국 만장일치)에 따라, 이사국 선출
 - － 이사는 이사국의 감독기구 대표가 이사국을 대표하여 역임
- 감독이사회 의장은 2년 주기 순번제('13년부터 일본의 금융청이 의장직 수행 중)로, 이사회 의장이 감독이사회 사무국 기능 담당

별첨 7 IFRS 감독이사회 진출의 의의 및 기대 효과

1. IFRS 감독이사회 현황

- 현행 Board 멤버 : 7명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옵저버로 참석)
 - (개별국 또는 지역연합체 감독당국 : 5명) 한국 금융위원회 위원장, 미국 SEC 의장, 일본 금융청 부청장, 브라질 증권위원회 위원장, EC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커미셔너
 - (국제기구, 당연직 : 2명) IOSCO 이사회 의장 (現 호주), IOSCO 신흥시장국 위원회 위원장 (現 말레이시아)

역할	이름	국적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순번제)	Masamichi Kono	일 본	(現) IOSCO 이사회 이사 (現) 日 금융청 국제담당 Vice-Commissioner
위 원	신제윤	한 국	(現) 금융위원회 위원장
	Elisse B. Walter	미 국	(現) SEC 위원장
	Michel Barnier	E U	(現) EC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Commissioner
	Greg Medcraft	호 주	(現) IOSCO 이사회 의장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
	Ranjit Ajit Singh	말레이시아	(現) IOSCO 신흥시장국 위원회 위원장 (現)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위원장
	Lenoardo P. Gomes	브라질	(現) 증권위원회 위원장

2. 기대 효과

- (한국의 위상 제고) 국제 회계분야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 및 국격 제고
- (IFRS 재단의 운영에 관여) IFRS 거버넌스 중 최상위 기구로서 IFRS 제·개정 작업에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용이
- (신흥경제국의 대표 역할) 국제사회에서 신흥경제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손꼽히게 됨으로서 신흥경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 IFRS 제정 과정에 한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 제고